



꿈바당편지

내 왼쪽 어깨보다 덜 젖은 네 어깨를 보며
다행이라 여길 수 있다면

도서관 야외 정원과 숲속에 제주 돌 모양의 스피커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숲 속을 산책하거나 정원에서 따뜻한 햇살을 쬐 때 휘어진 마음을 음악이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음악이 제대로 나오는 지 숲길에 서서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였습니다. 다섯 살 정도 보이는 아이와 엄마가 숲 돌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길은 좁아서 보통 한 사람씩 걸어야 되었는데, 엄마와 아이는 손을 잡고 좁은 길에서 몸을 딱 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에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서로의 체온을 전달하며 걷다가 떨어진 아기동백꽃잎을 줍기도 하다가 까르르 웃기도 하다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은 따뜻한 그들의 모습을 오래오래 쫓았습니다. 내 귀는 그들의 이야기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오래 전 읽었던 북효근 시인의 「우산이 좁아서」란 시 한편이 떠오른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네가 나란히 걸으며

비바람 내리치는 길은

좁은 우산 하나로 버티며 갈 때

그 길 끝에서

내 왼쪽 어깨보다 덜 젖은 네 어깨를 보며

다행이라 여길 수 있다면

같이 좀 멀었어도 좋았을걸 하면서

내 왼쪽 어깨가 더 젖었어도 좋았을걸 하면서

젖지 않은 내 가슴 저 안쪽은 오히려 햇살이 짹짹하여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하면서

-북효근 「우산이 좁아서」 전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마음을 내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내 어깨보다 그대의 젖은 어깨가 더 신경 쓰이고 내 발걸음 내딛는 자리보다 그대의 발걸음 내딛는 자리가 더 걱정이 되는 마음, 살짝 그대의 마음을 엿 본 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 사랑이 숲길에 넘쳐 서로에게 거울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아기동백꽃이 만발해 지는 사이 올 한 해가 이울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작하게 흐르지만 체감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정신없던 상황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어 있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만큼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날이길 합니다.

따뜻한 오늘이 어느 날 비록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일이 좁은 숲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랑으로 될 수 있음을...

꿈바당책장

엄소가 반 뜯어 먹고 내가 반 뜯어 먹고

아직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때
문 밖에서 있는 저녁에게 “들어와! 밥 먹자” 자그락 자그락 밥상을 차리고
밥이 조금 섭섭하면 박하사탕 하나 물고
다진 저녁을 싸하게 바라보다가
그래! 아직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때
시(詩)! 어! 아직은 내가 그럴 때
그러해서 빠그덕 빠그덕 아파주고
울어 줄 때 상처 딱지가 가려우면서 낱아가는 걸 지켜 볼 때
내가 그러 했으니 당신도 그러하기를
내가 시를 쓰는 동안에, 당신이 읽는 동안에

시를 쓰는 내내 나의 삶은 저녁 어스름 녀에만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호흡의 결 덕분이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한걸음 돌아서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커지는 형광등처럼 생각의 끝이 망설이다 반짝 켜진다.
태생이 그러한 거다. 흠을 끌어안고 사는 어머니에게서 이어진 피가 자꾸 흠으로 흘러든다.
어머니의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삶이 이울면 나의 봄도 따라서 왔다 따라서 가고 삶이 이울었다. 어머니가 앞에서 말하면 나는 뒤에서 그걸 받아 적으며 걸었다. 동박낭 강알 아래를 걸어가면 동백꽃을 밟고 굴 꽃 냇 아래를 걸어가면 굴꽃을 밟았다. 어머니의 걸음 뒤엔 그게 어디든 꽃길이었다.
그렇게 걷다보면 하루는 스프링 끼워진 노트처럼 잘 넘어갔다.
시도 그랬다. 걸리는 것 없이, 어려운 것 없이, 잘 넘어간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하고 읽으면서 어렵지 않아야 한다. 두 번, 세 번 읽는 순간의 감정선에 따라 다르게 읽혀야 한다.
시를 살아 있는 물질쯤으로 여기는 나의 뇌구조 덕분에 가능한 생각들이다.
살아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늘 나를 긴장하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살아있으면 상처도 아물고 딱지도 떨어진다. 까만 씨앗처럼 작아진 상처의 자리가 간지러워 긁는다. 죽기 전에 상처 딱지는 다 낱아야 한다.
앞서 걸던 어머니 무슨 말 끝엔가 한마디 툭 던지신다.
“어둡엉 불각허당보민 다 된다”
오늘은 또 그걸 받아 적으며 시작노트를 편다.
어두웠다 밝았다 하루를 보내면 다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두웠다 밝아져서 다 되어진 그 무엇
오늘 시의 화두가 참 지난하다. 수크령처럼 휘어지는 어머니의 등에 작은 여백이 생긴다.
평생을 만들어 놓은 몸의 여백 안에 하늘이 들어와 앉는다.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화귀回歸 본능이 생겼다.
자꾸 사투리를 쓰고 말이 가진 품격과 깊이에 감탄이 쏟아진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 말이 가진 어여쁘고 아깝고 속 깊은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작업은 앞으로 사투리 근처를 자꾸 아슬하게 다닐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메밀가루를 마루에 놓고 갔다고 오늘은 범인색출을 하러 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메밀수제비를 끓이고 있다.
누군지 오늘 잡혀온 범인 앞에 뜨끈한 수제비 그릇과 엇그제 배송된 감한 봉지가 들려지리라.
내가 수제비 한 그릇을 훌 훌 불며 먹는 동안 잡혀온 범인이 아삭이며 감을 깎아 먹는 동안, 당신들은.. 그래요 아직 내 옆에서 시 한줄 읽고 계시는
당신들은 모쪼록 늘 안녕하시기를.

나는 아직 나의 그리움을 다 건지 못했다.
그러니 시어! 아직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때



강영란

1998년 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
2010년 열린시학 시신인문학상 당선
2015년 제5회 서귀포문학상 수상
제주문인협회 회원
시집: 『소가 허로 풀을 감아올릴 때』 『엄소가 반 뜯어 먹고 내가 반 뜯어 먹고』

어제 읽은 책 ①

싫은 날

성영란 지음 / 출판사 반달 /
청구기호 유아 813.8 성 64 사



땡땡땡땡땡땡땡!

아침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학교 종소리로 들릴 만큼 힘차게 울립니다.

이어서 들리는 엄마의 외침소리!

‘일어나-’, ‘학교가야지~~’

하지만 숙제도 안했는데,,, 머리를 만져보지만 열도 나지 않습니다.

꿈지락 꿈지락,,,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습니다.

세상이 깜깜한 밤이 되어 버리면..... 아니면 지구가 쪼개져 버리면.....

누구나 한번쯤은 아침 이불 속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

땡! 단호하게 울리는 한번의 종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서둘러서 도착한 학교! 하지만 오늘은 개교기념일입니다. ‘맞다!’

선물과도 같은 오늘 하루가 매일 같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만나는 모두에게 춤을 추며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넬 거예요.

<싫은날>을 쓰고 그린 성영란 작가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영화처럼 꺼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때와 오버랩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곳으로 걸어가 보지 않을까요?

-사서 조경림

어제 읽은 책 ②

가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지음 / 이선주 옮김 /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 / 청구기호 청소년 863제 19 나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자 GAZA'에 띄운 편지는 이스라엘의 17살 소녀와 20살 팔레스타인 청년이 유리병을 매개체로 시작한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유리병 속에는 '이름 모를 너에게'하고 시작되는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살폭탄테러로 숨진 결혼을 앞둔 여자의 죽음을 떠올리며 쓰인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담겨 있다. 팔레스타인 청년 나임은 가자해변 모래밭에서 우연히 이 유리병 속의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유리병 속 편지를 받은 나임의 첫 번째 답장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비아냥 섞인 호기심으로 채워져 있지만, 사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는 더 큰 '일상의 증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물론 알고 있을 테지만, 헤라가 있을 때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되묻곤 해.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고 그러다 막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 우리 쪽과 마찬가지로 너희 쪽에도 당연히 똥똥한 사람들과 마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말야.’(29~30쪽)

“나·너·그’ 하는 식의 단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복수만 있는 거지.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면 나쁜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는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바뀌지만 할 뿐 바로 그 복수는 늘 존재하는 거지.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절대로 하나+하나+하나가 아니라 늘 4000만인 거야. 그러니 사람들은 민족을 통째로 등에 지고서 살아가는 것이고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등이 뭉개질 것만 같아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어져 버리지.”(72~3쪽)

탈과 나임이 주고받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통하여, 각자의 현실을 살아가는 두 인물의 마음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분쟁 지역의 현실과 삶의 의미,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절망에 잠겨지지 않으려는 희망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서 이지연



11월 프로그램

가을이 깊어 갑니다.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뜻일 테지요.
'긴 잠 자고 봄에 다시 만나'라고 말하는 듯 빨강, 노랑 이파리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흔듭니다.
도서관 프로그램도 이제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도서관을 더욱 북적거리게 했던 꼬마 작가들도,
토요일이면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그림책을 만들며 즐거워하던 가족들의 모습도 다음 주 수업을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꿈바당이 키운 아이들, 아이들이 키운 꿈바당!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도서관과 사람

이다연(11살) 어린이 인터뷰 - 11월

11월에는 '언어에 물들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온 이다연(11살) 어린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으로 도서관 최고 인기 시리즈 중의 하나인 엉덩이탐정 [833.8-트29]을 꼽았습니다. 엉덩이와 꼭 닮은 얼굴의 천재 탐정과 강아지 조수 브라운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다연이가 쓴 [게, 별자리가 된 이야기]도 만나보세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하 꿈): 안녕하세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언제 처음 왔나요?

다연: 6월 달에 책 읽고 글 쓰는 수업을 하러 처음 왔어요. 지금도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꿈: 11월 도서관 주제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주에서 별을 많이 본 적 있어요?

다연: 집 앞마당에서 별과 달이 보여요. 시골이 아닌데도 마당에서 볼 수 있어요.

꿈: 별을 보면서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연: 달에 토끼가 있다고 하잖아요. 토끼 같은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꿈: 우주인이 살고 있다면, 지구인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다연: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꿈: 혹시 우주비행사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다연: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우주여행은 가고 싶어요. 우주음식도 먹어보고,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되면 같이 사진도 찍을 거예요.

꿈: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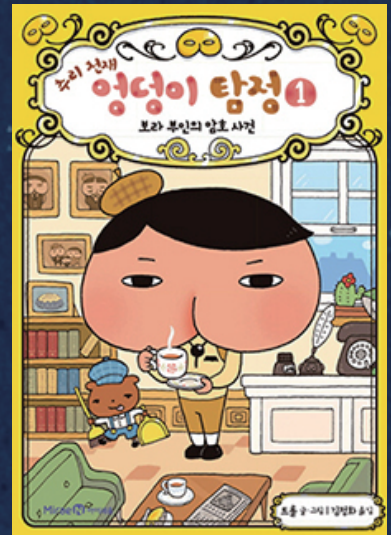
다연: 운전 실력도 필요하고, 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꿈: 10월에 서현이라는 친구가 11월에 인터뷰할 친구에게 좋아하는 동화책이 뭐지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책 있나요?

다연: 추리를 좋아해서 [엉덩이탐정]을 좋아해요. 추리를 할 때 엉덩이탐정이 바로 알아내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친구들과 퀴즈를 함께 맞히는 것도 좋아요.

꿈: 12월에 인터뷰할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있나요?

다연: 꿈바당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졌으면 좋는지 물어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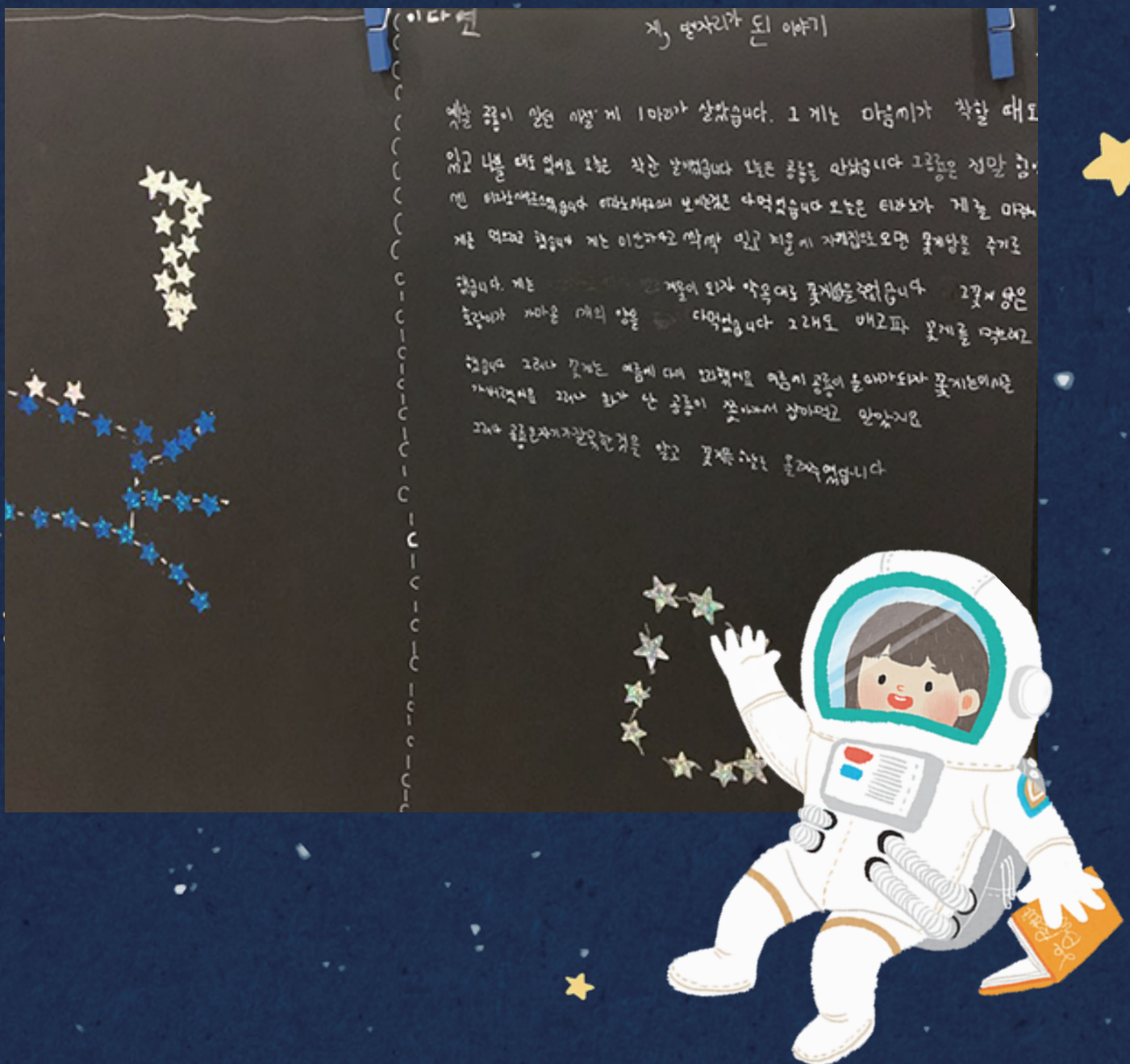
꿈: 다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연: 지금도 많긴 하지만, 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꿈: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이 있나요?

다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애기들한테 이해가 쏙쏙 되는 동화책을 쓰고 싶어요.

11월 인터뷰에는 도서관 11월 주제인 우주, 마이클 드리스콜의 '밤하늘 이야기'에서 고른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감,공간



제주의 도서관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연삼로 22, 4층

전화: 064-747-3273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2014년 개관한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부터 지역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모아진 2,800여권의 책을 지역사회의 아동 및 일반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은 문화공간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성된 동화구연 봉사동아리 '다운'과 음악 봉사동아리 '이그니스'를 주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18년 10월 리모델링을 막 끝내고 화사한 공간으로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들과 함께하기에 더 편한 공간이 됐으니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하시는 관장님과 친절히 안내해주신 사서선생님을 마주하니, 공간의 분위기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주의 책방 북스페이스 곱곰

주소: 제주시도평동 48-10 바인빌딩 1층

전화: 010-5105-7433

인스타그램: @gomgom-jeju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mgom-jeju>

북스페이스 곱곰은 어린이책방입니다.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어 매장에서 읽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수학이야기 '수학자로 보는 세계사'와 중학교 과정의 과학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크고 작은 세계' 수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서평을 써 보는 모임과, 환경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리마켓인 '도토리마켓'도 매달 열고 있습니다.

곱곰은 베스트셀러나 유명인사의 이야기보다 숨겨진 것들, 이웃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곱곰은 울림을 주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이웃들의 재능을 나누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픈 동네책방입니다.

시시쿨쿨뉴스

Book Hero

11월 3일(토)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배움터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책축제 “Book Hero”가 제주 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관으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야외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3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서활동 동아리를 만들고, 일 년 동안 함께해온 활동들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2018 탐나는 5060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

11월 7일(수)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2018 탐나는 5060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 이 열렸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전문가들의 특강과 토크콘서트,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 일과 사회참여 활동 정보까지 한자리에서 one stop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함께 배우고 나뉘는 성장의 열매를 탐나는 5060인생설계 만남의 광장에서 세대를 넘어 만나보았습니다.



북카페 전시 시화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북카페에서 제주문학이 주관하는 詩月의 마지막 밤, 문장' 이라는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제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강영란, 김병심, 김정희, 박희순, 양민숙, 장한라 시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시화전 마지막 날 밤에는 북카페에서 시낭송행사가 열려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피는 노란 꽃

공연장 옆 분수대 동산에 샛노란 꽃이 가득피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노란꽃은 왠지 봄과 어울릴 것 같은데, 가을에 이렇게 무더기로 핀 꽃은 이름이 뭘까 검색해보니, 털머위입니다. 털머위는 늦가을에 해안가에서 주로 피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제주도에서 무리지어 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꽃말은 한결같은 마음,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임에도, 꽃은 꽃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사인본

저자사인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쇄된 활자를 넘어 손글씨로 전해지는 작가의 온기가 더 가까운 이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듯합니다. 작가를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들를 때 기회를 틈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책의 첫 장을 넘겨서 좋아하는 작가의 한마디가 있다면 흔연한 책읽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